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에 대한 상관성 연구

이승렬 · 신흥묵*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and Yangmyung disease in Sanghanron

Seung Yeul Lee, Heung Mook Shi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Chang Chung-ching(張仲景) in the Later Han(Eastern Han) Dynasty of Chinese history wrote the treatise on Diseases Caused by Cold Factors(傷寒論; Shang Han Lun)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黃帝內經; ECIM) after collecting medical treatment experiences until the Han Dynasty. It had great significance that Shang Han Lun was the origin of treating six-channels(六經) and there showed the peculiar guidelines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to divide diseases into six-channels.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who had studied Shang Han Run thought highly of meridians and until now it was generally known that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CIM(黃帝內經, 素問·熱論) was the basis of Shang Han Run.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CIM was the first text in which the basic theory on six-channels according to the types of illness was introduced. In my point of view, the theory of treating six-channels had close relation to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黃帝內經, 靈樞·經脈篇) as well as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CIM. Therefore I took a look at the origin of treating six-channels in Shang Han Lun and illuminated again the meaning to compare the parts of <YangMing-disease(陽明病)> in Shang Han Lun with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 Conclusion : The symptoms divided into six-channels in the chapter of channels in ECIM gave the fundamental basis of diagnosis and treatment based on overall analysis of signs and symptoms(辨證論治) an illness in the Zangfu(臟腑) in respect of meridians. Viewed in the light of diagnosis and treatment based on overall analysis of signs and symptoms(辨證論治), the symptoms of YangMing-channel(陽明經) in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 were, for the most part, accord with those of YangMing-disease in Shang Han Lun. Furthermore, the symptoms in Shang Han Lun were explained definitely and in detail. Therefore the theory of Shang Han Lun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ECIM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YangMing-disease in Shang Han Lun implied medical cases in stomach meridian(胃經) and large intestine meridian(大腸經). Therefore Shang Han Lun was the foundation of treatment based on overall analysis of signs and symptoms(辨證論治) in respect of meridian as well as the text in which the steps of infectious diseases(外感病) of human bodies were explained.

Key words : Shang Han Lun(傷寒論), YangMing-disease(陽明病), Overall analysis of signs and symptoms(辨證論治)

서론

『傷寒論』은 後漢 張機(仲景)의 著作인 『傷寒雜病論』의 一部分에 속하고 理·法·方·藥을 모두 갖추고 있는 醫書로서, 六經

에 근거하여 病을 분류하고 八綱으로 證을 辨別하였으며 六經과 辨證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治법·처방을 선택하도록 한 辨證論治의 효시로서 意義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傷寒論』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¹⁾, 金代의 成無己가 『傷寒論』의 全文에 대해 注釋한 이래 수많은 注釋書가 있으나 보는

* 교신저자 : 신흥묵,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heungmuk@donguk.ac.kr, Tel : 054-770-2372

· 접수: 2002/07/08 · 수정: 2002/08/30 · 채택 : 2002/11/18

1) 王琦, 陳庚, 近三十年來有關『傷寒論』三陰三陽問題研究概況, 中國, 山東中醫學院學報, 7(1), 1983. p. 54-p. 59.

本 論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 論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仲景은 太陽病脈證并治 第9條에서 ‘太陽病, 頭痛至七日已上自愈者, 以行其經盡故也. 若欲作再經者, 針足陽明, 使經不傳則愈’라 하여 『傷寒論』의 六經의 이해에 있어서 ‘經絡’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암시한 바, 宋代의 朱肱은 “治傷寒先須識經絡, 不識經絡, 觸途冥行, 不知邪氣所在”²⁾라 하여 『傷寒論』의 해석을 위해 ‘經絡’의 인식을 강조하였다. 한편 清代의 汪琥는 『傷寒論辨證廣注』에서 “仲景論傷寒 實本『素問·熱論』, 不出『靈樞·經脈』”이라 하여 『傷寒論』의 六經辨證이 『靈樞·經脈篇』과는 관련이 없고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素問·熱論』은 六經分證을 足六經에 기초하여 서술하였고, 『靈樞·經脈篇』은 六經을 手足의 三陰三陽經으로 구분하고 臟腑를 배속시킴으로서 經絡에 의한 장부의 辨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12經脈의 病候를 是動則病과 所生病者로 구분함은 물론 氣盛有餘와 氣虛의 辨證을 記述하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 病情의 盛, 虛, 寒, 熱에 따른 鍼法과 灸法까지 제시함으로써 辨證論治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때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기본틀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논자는 우선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을 대상으로 그 병후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傷寒論』에서의 六經辨證의 유래와 의미를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傷寒論』의 陽明病의 脈證并治가 『靈樞·經脈篇』의 經絡病候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구명해 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 『素問·熱論』에 나타난 六經分證의 내용과 意義를 분석한다.
 - 『傷寒論』의 陽明病의 病候를 변증한다.
 - 『靈樞·經脈篇』에 나타난 陽明經의 病候를 변증하고 분석한다.
 - 2), 3)의 病候를 비교 분석하여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相關性을 검토한다.
- 本 論文에서 활용한 『傷寒論』은 明代 趙開美的 ‘仲景全書本(宋版本)’³⁾을 底本으로 한 『傷寒論譯註』⁴⁾을 기준으로 하였다. 論文中에서 『傷寒論』의 條文을 효과적으로 색인, 대조하기 위해 脚註나 괄호로 처리한 아라비아 숫자는 同 서적에 나와 있는 條文의 번호를 나타낸다.
- 『傷寒論』의 辨陽明病脈證并治의 分類는 『仲景辨證治療學』⁵⁾과 『經絡辨證概論』⁶⁾에 기초하였다.

1. 『素問·熱論』의 六經分證

『素問·熱論』에 언급된 六經分證의 내용을 보면 “傷寒一日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于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骨 其脈循脇絡于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于臟者 故可汗而已, 四日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絡于噎, 故腹滿而噎乾, 五日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于肺 系舌本 故口燥舌乾而渴, 六日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于肝 故煩滿而囊縮, 三陰三陽 五臟六腑皆受病 榮衛不行 五臟不通 則死矣.”이라 하여 처음으로 傷寒의 病證을 巨陽, 陽明, 少陽의 三陽病과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病으로 분류하여 六經分證의 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傷寒論』 六經辨證의 효시로 인식하고 있다.⁷⁾

그 내용을 분석하면 六經의 熱證과 實證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記述함으로써 六經의 寒證과 虛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傷寒論』과 비교하여 보면, 『傷寒論』의 六經辨證理論이 『素問·熱論』의 六經分證思想에서 來源했으나 『傷寒論』의 六經의 개념은 『素問·熱論』의 六經보다 훨씬 포괄적이어서 經脈循行의 理致로만 설명할 수 없다.⁸⁾ 왜냐하면 『素問·熱論』의 六經病證은 經脈의 循行部位에 나타나는 증상을 위주로 論했으나, 仲景은 『內經』全編의 學理와 外感熱病의 實際情況에 근거하여 三陰三陽을 새롭게 概括하였기 때문이다.⁹⁾

표 1.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病證 비교¹⁰⁾

	熱 論		傷 寒 論
	病症	經脈과 그 分布	病症(綱領)
太陽	頭項痛·腰脊強	足太陽膀胱經	脈浮, 頭項強痛, 惡寒
陽明	身熱·目疼·鼻乾·不得臥	其脈俠鼻 絡於目(主肉)	身熱, 自汗出, 不惡寒, 惡熱
少陽	胸脇痛·耳聾	其脈循脇 絡於耳(主膽)	口苦, 咽乾, 目眩
太陰	腹滿·噎乾	太陰脈布胃中 絡於噎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 噎乾, 時腹自痛
少陰	口燥·舌乾·渴	少陰脈 貫腎絡於肺 繫舌本	欲吐不吐, 心煩, 欲寐, 自利而渴
厥陰	煩滿·囊縮	厥陰脈 循陰器 絡於肝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衄

2.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는 달리 『靈樞·經脈篇』에는 手足三陰三陽의 經脈病候가 是動則病과 所生病者의 病機格式으로 구분되고 氣盛有餘와 氣虛로 변증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記述되

2) 朱肱, 活人書, 아티전, 서울, 1998, p. 1.-2.
 3) 裘秉哲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 현재까지 전해지는 『傷寒論』의 二大版本에는 北宋시대(1065년)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宋版本(일명 宋本)’과 金代 成無己의 ‘注解傷寒論版本(일명 成本)’이 있는데, 明代 趙開美的 ‘仲景全書本’은 이 ‘宋版本’이 후대에 전해진 것이다. 『傷寒論』의 版本은 이밖에 日本에 전해진 傳寫本으로 ‘康治本’, ‘康平本’ 등이 있다.
 4)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4.
 5) 戴玉 等 編著, 仲景辨證治療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6) 劉孔藤 主編 岳汎 周然密 錢小燕 編著, 經絡辨證概論, 中國, 廈門大學出

版社, 1988.
 7) 上海中醫學院編, 新編中醫學教材 中醫學基礎, 中國 上海, 商務印書館, 1984, p. 6.
 8) 殷鑑元, 黃帝內經과 仲景傷寒論의 醫學思想의 連繫性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86, p. 8-12.
 9) 朴贊國,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의 六經辨證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 碩士學位論文, 1981, p. 42
 10) 申興默 金吉壹,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慶州, 東國大學校 出版局, 2000, p. 148.

어 있으며, 病證의 盛, 虛, 寒, 熱의 辨證에 따른 鍼과 灸의 치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와 病證의 盛, 虛, 寒, 熱의 辨證에 따른 鍼과 灸의 치법이 『傷寒論』의 辨六經脈證并治의 理論의 土臺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論者は 그 타당성을 檢討하기 위하여 『傷寒論』의 ‘辨陽明病脈證并治’의 病候를 辨證하여 概括하고 『靈樞·經脈篇』의 陽明病의 病候를 辨證·分類하여 상호비교 考察해보기로 한다.

3.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 분석

1) 『傷寒論』 陽明病의 辨證

陽明이란 陽氣가 가장 盛한 것을 지칭하며 經絡으로는 足陽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을 말한다. 陽明病은 이러한 陽明經의 氣化失調가 胃와 大腸의 병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陽明은 多氣多血하여 氣血이 가장 왕성므로 邪氣가 陽明을 침입할 경우 旺盛한 氣血과 相搏하여 燥熱로 化하기 쉽고, 燥熱의 實邪가 內結하면 ‘不通’의 病理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陽明病이 가지는 이러한 裏熱實證의 病機를 ‘胃家實’로 개괄하였다. ‘胃家’란 大小腸과 胃를 모두 칭하는 말이며 ‘實’이란 邪氣가 盛함을 가리킨다. 胃家實은 ‘陽明熱證’ 및 熱證이 더욱 심해져 나타나는 ‘陽明實證’으로 二分해 볼 수 있으며, 治療법은 각각 白虎湯類를 사용한 清熱법과 承氣湯類에 의한 攻下法을 사용한다. 이러한 ‘胃家實’의 ‘陽明熱證’과 ‘陽明實證’이 유발되는 病因과 傳變의 경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太陽病에 失治나 誤治로 津液이 傷하여 胃中을 乾燥하게 하고 太陽之邪가 陽明으로 轉入하여 생긴 것을 ‘太陽陽明’이라 하며 둘째, 少陽病에 잘못 汗·吐·下·利小便 같은 방법을 써서 津液이 傷하여 少陽之邪가 陽明으로 轉入하여 생긴 것을 ‘少陽陽明’이라 하고 셋째, 病人의 陽氣가 盛하거나 宿食이 있는 상태에서 燥熱한 邪氣가 陽明胃腑로 바로 침범하여 생긴 것을 ‘正陽陽明’이라 한다. 陽明病은 이러한 ‘熱證’과 ‘實證’ 외에 陽明病의 熱邪가 풀리지 않은 것이 太陰의 脾濕과 相合, 濕熱이 薰蒸하여 肝膽의 疏泄기능에 영향을 주어 身熱, 發黃, 小便不利하는 ‘陽明發黃證’이 있고, 陽明의 심한 熱이 血分으로 들어가 口燥但欲嗽水不欲嚥, 鼻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陽明血證’이 있다. 또 ‘胃家實’과는 달리 胃의 陽氣가 허약한 경우에는 胃寒氣逆의 裏虛寒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를 ‘陽明中寒證’이라 한다. 또한 陽明病은 太陰經과 燥濕相濟의 生理的 상호작용을 가지므로 脾胃의 陽이 부족하면 濕이 盛해져 太陰病을 형성하고, 脾胃의 陽이 旺盛하면 熱로 轉化하여 陽明病을 형성한다. 이러한 陽明과 太陰의 相互轉變을 일컬어 ‘實則陽明, 虛則太陰’이라 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傷寒論』에서의 陽明病의 辨證은 기본적으로 ‘熱證’과 ‘實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 ‘發黃證’, ‘血熱證’, ‘中寒證(裏虛寒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陽明熱證

陽明熱證은 邪氣가 陽明經에 침입하여 旺盛한 氣血과 相搏하여 胃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陽明府病(陽明實證)과 비교하여 陽明經病으로 분류하는데, 脈浮而大, 煩渴, 目痛, 鼻乾不得眠 등이 主證이다¹¹⁾. ‘陽明熱證’은 經氣의 有餘(太過)로 인한 溫熱의

太盛으로(溫淫)으로 초기에 惡寒이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發熱, 汗出, 消穀善飢, 口脣部の 瘡瘍, 頸腫, 喉痺 등 陽明病의 溫熱病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본적인 治療처방은 白虎湯이다.

(2) 陽明實證

陽明實證은 陽明經에 邪氣의 침입으로 胃大腸의 津液이 손상되어 胃大腸의 實熱의 증상을 보이는 陽明府病(胃家府病)으로 분류하는데, 脈沈而實, 潮熱, 譫語, 腹滿大便硬 등이 主證이다¹²⁾. 또한 이러한 實證이 악화되면 精神異常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적인 治療처방은 三承氣湯(大承氣湯,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이다.

(3) 陽明發黃證

陽明病의 病機는 燥熱이 主證이지만 濕熱이 鬱蒸하여 ‘發黃證’이 나타나기도 한다. 陽明의 發黃證은 기본적으로 經氣의 凝滯(鬱結)로 볼 수 있으며 人體 내부에 瘀熱이 鬱結되므로 濕熱이 薰蒸하여 小便黃(또는 發黃)의 症狀이 있다. 일반적으로 陽明病은 汗이 많이 나고 小便이 잘 나오는데, 陽明發黃證은 無汗과 小便不利로 裏熱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濕熱이 鬱蒸하여 黃疸이 발생한 것이다.

(4) 陽明血證

陽明病은 평소 瘀血이 蓄積되어 있는 경우에 裏熱과 結合하여 血證(血熱證·畜血證)을 형성하기도 한다. ‘陽明血證’은 燥熱이 血分으로 들어가 血絡을 손상하므로서 鼻出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陽明經의 經氣가 有餘한 陽明熱證이며 燥熱이 심해져 經氣가 厥逆한 증상이다.

(5) 陽明中寒證

陽明病은 陽氣가 亢盛하는 裏熱實證이 위주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평소 胃陽이 충분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하여 入裏한 경우 熱로 轉化하여 實熱證을 형성하는데 반해 평소 체질적으로 胃陽이 부족한 사람은 邪氣가 寒으로 轉化하여 ‘陽明中寒證’이 발생하게 된다. 胃中의 陽氣가 부족하여 腹部的 賁響(腸鳴)과 脹滿, 腹水, 身前的 寒慄 및 手足冷, 胃寒氣逆으로 인한 嘔逆 등의 증상이 있다. ‘陽明中寒證’은 經氣의 不足으로 인해 발생하며 陽明病임에도 기본적으로 熱證의 증상이 없다.

2) 『靈樞·經脈篇』의 陽明經病

陽明經은 足陽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을 포괄한다. 따라서 陽明經의 病候는 기본적으로 胃腑와 大腸腑의 病態를 반영한다.

(1) 胃足陽明經의 病候

『靈樞·經脈篇』에서는 足陽明胃經의 氣化失調에 따른 病證을 “是動則病 洒洒振寒 善呻 數欠 顏黑 病至則 惡人如火 聞木聲則 惕然而驚 心欲動 欲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是爲肝厥, 是主血所生病者 狂瘧溫淫 汗出 軌衄 口喎 脣診 頸腫喉痺 大腹水腫 膝腫腫痛 循膈乳氣股伏兪尻外廉足跗上皆痛 中指不用 氣盛則 身以前皆熱 其有餘于胃則 消穀善飢 弱色黃 氣不足則 身以前皆寒栗 胃中寒則脹滿”으로 是動則病과 是主血所生病者로 개괄하고 있다.

① 病候의 분석과 辨證

足陽明胃經은 胃腑의 氣化를 주도하는 經脈이며 運氣의 相

11) 陳鼎三 編著, 醫學探源, 中國 四川省,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2

12) 醫學探源, 前掲書, p. 123.

습이 胃土와 陽明燥로 胃土의 濕한 기운이 陽明燥와 燥濕의 相濟를 통하여 胃氣는 喜潤惡燥와 主降의 생리를 발현하게 된다. 한편 足陽明經은 同名經인 手陽明大腸經, 表裏經인 足太陰脾經과 經氣相通에 의한 燥濕相濟를 형성함으로써 大腸과 脾臟의 기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胃土의 濕은 手陽明大腸經의 燥氣를 相濟하여 大腸의 傳道를 돕고, 大腸의 傳道는 胃氣의 下降을 돕는다. 또한 足陽明胃經의 燥化는 太陰之濕과 장부 자음의 상호배합으로 脾氣가 지나치게 濕하지 않고 喜燥惡濕하게 하고, 足太陰脾經의 濕化는 胃氣가 喜潤惡燥하여 지나치게 燥하지 않도록 하는 燥濕의 相濟를 유지한다.¹³⁾ 足陽明胃經의 氣化失調는 燥熱의 太盛, 濕熱의 薰蒸 및 胃陽虛로 인한 寒濕 등 病態를 야기하는데, 『靈樞·經脈篇』에 언급된 足陽明胃經의 각종 病證을 분류해보면 『傷寒論』 陽明病의 변증분류인 陽明熱證, 陽明實證, 陽明發黃證, 陽明血證, 陽明中寒證에 상응하고 『傷寒論』에는 보이지 않는 經絡部位의 病證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陽明熱證>

足陽明胃經의 經氣가 太過(有餘)하게 되면 기지개를 자주 켜게 되고 하품을 자주하게 되는 善呻, 數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陽明熱證의 전구 증상이다. 『陽明熱證』은 陽明燥熱이 面部에 上逆하여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 顏黑, 胃經의 氣가 盛하면 足陽明胃經의 經絡이 주로 분포하는 인체의 앞쪽 부위에서 모두 열이 나는 氣盛則身以前皆熱 등이 있다. 한편 發狂, 瘧疾, 濕熱이 생기고 땀을 흘리는 ‘狂瘧溫淫汗出’의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는 陽明熱證이 심해져 陽明實證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¹⁴⁾

<陽明實證>

陽明熱證이 더 심해지면 陽明實證이 되는데, 사람과 불을 싫어하는 病至則惡人如火, 나무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聞木聲則惕然而驚, 가슴이 뛰며 불안한 心欲動, 집의 문과 창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하는 欲獨閉戶塞牖而處, 심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甚則欲上高而歌,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다니는 棄衣而走 등의 精神病的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모두 陽明의 熱이 너무 盛해져 心神을 動搖하여 誘發된 것이며 이러한 陽明經氣가 厥逆한 증상을 肝厥¹⁵⁾이라고 하였다.

<陽明發黃證>

陽明發黃證은 소변색이 노랗게 되는 溺色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其有餘于胃 則消穀善飢 溺色黃이라 기술하여 陽明熱證의 熱이 胃에서 남아들면 陽明發黃證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陽明血證>

『靈樞·經脈篇』에 是主血所生病者라 하여 足陽明經은 血을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足陽明胃經의 病證은 血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한다.¹⁶⁾ 陽明血證은 콧물과 코피가 나는 衄血이

있는데, 이는 陽明熱證의 熱이 심해져 나타나는 變證이다.

<陽明中寒證>

陽明中寒證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몸을 떨게 되는 酒酒振寒, 腸鳴과 腹部가 脹滿한 責響腹脹, 臍腹部가 水腫으로 脹滿하게 되는 大腹水腫, 胃經의 氣가 不足하게 되면 몸의 앞쪽 부위가 모두 차가워져서 전율하게 되는 氣不足則身以前皆寒栗, 胃中에 寒邪가 있어 脹滿이 발생하는 胃中寒則脹滿 등이 있다. 이것은 모두 平소 胃陽이 不足한 사람에게 邪氣가 胃로 침입하면 寒으로 轉化되어 裏虛寒證이 발생하여 나타난 증상들이다.

<經絡部位의 病證>

『靈樞·經脈篇』에는 『傷寒論』의 辨證分類의 관점 외에도 足陽明胃經의 순행부위와 관련하여 구안와사가 생기고 口脣이 헐게 되는 口喎脣唇, 膝蓋部가 붓고 아픈 膝腫痛, 胸側·乳部·氣街·大腸部의 앞쪽·伏兔·足脛部의 바깥쪽·足背部 등이 모두 아픈 循膺, 乳, 氣街, 股, 伏兔, 肝外廉, 足跗上皆痛, 가운데 손가락을 못쓰게 되는 中指不用의 病證을 記述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胃氣의 不調가 足陽明胃經의 循行部位에 반영된 증상이다.

표 2. 『靈樞·經脈篇』 陽明經 病證 分類

병증분류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是動則病	所生病者	是動則病	所生病者
陽明熱證	是主津/喉痺/口乾	善呻 數欠/顏黑	狂瘧溫淫汗出/氣盛則身以前皆熱/其有餘于胃則 消穀善飢	
陽明實證		病至則惡人如火/聞木聲則惕然而驚/心欲動/欲獨閉戶塞牖而處/甚則欲上高而歌/棄衣而走	狂瘧溫淫汗出/	
陽明發黃證	日黃/口乾		其有餘于胃則 溺色黃	
陽明血證	衄血		是主血/衄血	
陽明中寒證	是主津/氣虛則寒栗不復	酒酒振寒/責響腹脹	大腹水腫/氣不足則身以前皆寒栗/胃中寒則脹滿	
經絡部位의 病證	齒痛頸腫	肩前臑痛/大指次指痛不用/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口喎脣唇/頸腫喉痺/膝腫痛/循膺, 乳, 氣街, 股, 伏兔, 肝外廉, 足跗上皆痛/中指不用	

(2) 大腸手陽明經의 病候

『靈樞·經脈篇』에는 手陽明大腸經의 氣化失調에 따른 病證은 “是動則病 齒痛 頸腫, 是主津液所生病者 目黃 口乾 衄血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栗不復”의 是動則病과 是主津液所生病者로 개괄되어 있다.

① 病候의 분석과 辨證

大腸經의 生理는 陽明燥金의 氣化로 이는 대장의 水分을 흡수를 조절하도록 한다. 手陽明大腸經은 同名經인 足陽明胃經과 燥濕相濟로 經氣가 相通하므로 대장과 胃腑는 상호 燥濕의 相濟를 통하여 胃腑는 지나친 濕의 손상을 받지 않게 되며 大腸은 과도하게 燥化될 않게 된다. 또한 手陽明大腸經은 表裏經인 手太陰肺經과 燥濕相濟의 經氣調和를 유지하는데, 手陽明大腸經의 燥

와 血이 많아 주로 血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13) 臟腑經絡學, 前掲書, p. 200.

14) 장개빈은 陽明經에 熱이 盛하면 發狂하고 風邪가 偏盛하면 화질이 발생하며 溫氣가 盛하면 땀이 난다고 하였다.

15) 肝은 장강이씨의 옛말로 單語의 뜻만 보면 足脛部의 氣가 上逆했다는 뜻이다. 足陽明胃經이 足脛部를 통과하므로 『靈樞·經脈篇』에서의 ‘肝厥’은 陽明經의 氣가 厥逆하여 생기는 病證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6) 장개빈은 中焦脾胃는 水穀을 받아들여 血로 변화시키므로 陽明經은 氣

性은 手太陰肺經의 지나친 濕化를 방지하여 肺氣의 清肅을 유지하게 하고, 手太陰肺經의 濕化는 手陽明大腸經의 지나친 燥化를 막아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¹⁷⁾ 手陽明大腸經의 生理的 機能이 失調되면 燥와 濕의 偏見으로 인한 病態가 나타나는데, 이를 분류해보면 『傷寒論』 陽明病에 대한 辨證方法과 같이 陽明熱證, 陽明發黃證, 陽明血證, 陽明中寒證으로 나눌 수 있고 이밖에 經絡部位의 病證도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陽明熱證>

陽明熱證은 燥氣가 火熱과 합쳐져 燥熱이 지나치면 同名經인 足陽明胃經을 따라 위로 咽喉와 口와 鼻腔을 薰蒸하므로 口乾, 喉痺가 있다. 또한 大腸 津液이 燥熱의 손상을 받으면 便秘를 일으킨다.

<陽明發黃證>

陽明發黃證으로는 目黃이 언급되고 있다.

<陽明血證>

陽明血證은 燥熱이 위로 코를 薰蒸하여 나타나는 衄衄을 기술하고 있다.

<陽明中寒證>

陽明中寒證은 大腸經의 氣化가 부족하여 惡寒戰慄이 일어나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여 虛則寒栗不復이라고 記述하였다.

<經絡部位의 病證>

『傷寒論』의 辨證관점 외에 手陽明大腸經의 循行部位¹⁸⁾와 관련하여 이가 아프고 목이 붓는 齒痛·頸腫, 어깨와 上膊의 앞쪽이 아프고 第1, 2指가 아프며 잘 쓸 수 없는 肩前臑痛·大指次指痛不用, 大腸經의 邪氣의 實로 脈이 지나가는 部位가 붓고 열이 나는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의 病證을 記述하고 있다.

3)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 비교

(1) 陽明熱證

陽明熱證은 『傷寒論』에서는 초기에는 惡寒이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溫熱의 太盛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發熱, 汗出, 消穀善飢, 大便秘結, 咽乾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熱證이 심해지면 돌연 發狂하는 精神病的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靈樞·經脈篇』에서도 善呻, 數欠의 전구증상 後에 顏黑, 消穀善飢, 喉痺, 口乾과 陽明經부위인 人體前部의 發熱과 發汗이 생기며 이것이 심하여 溫淫¹⁹⁾이 되면 狂瘧증상이 나타난다고 記述하고 있다. 『傷寒論』 陽明病 條文²⁰⁾과 『靈樞·經脈篇』의 '陽明熱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 臟腑經絡學, 前掲書, p. 170.

18) 『靈樞·經脈篇』에 나타난 手陽明大腸經의 循行部位
手陽明之脈 起于大指次指之端 循指上廉 出合谷兩骨之間 上入兩筋之中 循臂上廉 入肘外廉 上臑外前廉 上見 出臑骨之前廉 上出于柱骨之會上 下入缺盆絡肺 下膈屬大腸 其支者 從缺盆上頸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

19) '溫淫'은 溫邪淫溢로 溫熱太盛을 말한다.

20) 『傷寒論』 陽明病 條文 중에서 『靈樞·經脈篇』의 陽明熱證과 관련된 條文은 190조-陽明病의 外證증상/191조, 192조-陽明病에 表證已罷로 發熱하는 病機/193조, 194조-太陽이 陽明으로 轉屬하는 과정/197조-陽明病환자의 汗出증상/199조-消穀善飢와 能食을 비교/201조-陽明病 熱性으로 發狂/212조-發汗하여 津液부족한 상태와 관련 便秘와 燥熱의 해소/215조-陽明病에 邪熱이 表部에 鬱帶된 것/229조-陽明熱證으로 白虎湯證/232조-陽明熱證으로 白虎加人參湯證/233조-陽明熱證으로 猪苓湯證/266조-消穀善飢와 관련내용 등이다.

표 3.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陽明熱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善呻 數欠
◎惡熱(190,191)身熱(190,215)發熱(194,198)	◎氣盛則 身以前皆熱
◎自汗出(191,212,227)汗先出不徹(193) 汗出戰戰然(194,197)多汗(223) 頭汗出(226)	◎汗出
◎翕翕有熱狀이다가 奄然發狂 (201-陽明實證으로 넘어가는 상태)	◎狂瘧溫淫
◎面合赤色(215)	◎顏黑
◎陽明病 若能食 名中風 不能食 名中寒(199) 消穀善飢(266)	◎其有餘于胃則 消穀善飢 (以上 胃經)
◎病已差尙微煩 不了了者 此大便已硬故也(212)	◎手陽明大腸是主津
◎咽乾(198)	◎喉痺/口乾(以上 大腸經)

그리고 『傷寒論』에서는 이러한 '陽明熱證'에 대한 치료처방으로 白虎湯(제229조), 白虎加人參湯(제232조), 猪苓湯(제233조)을 病證에 따라 제시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陽明의 熱을 풀기위해 清熱除煩하고 益氣生津하며 경우에 따라 利水작용으로 解熱을 도모한 처방들로서 '陽明熱證'의 病因病機에 부합된다.

(2) 陽明實證

陽明實證은 '陽明熱證'의 熱이 더욱 심해져 經氣厥逆으로 精神病的 증후까지 나타내는 病證인데, 『傷寒論』에서는 이러한 傳變단계에 대해 潮熱을 수반하며 <翕翕有熱狀 奄然發狂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譫語와 狂躁證 등 精神病的 다양한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 『靈樞·經脈篇』에서도 傳變단계를 <狂瘧溫淫汗出>로 나타내고 『傷寒論』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精神病的 다양한 증상을 記述하고 있다. 『傷寒論』 陽明病 條文²¹⁾과 『靈樞·經脈篇』의 '陽明實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陽明實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기본적으로 陽明熱證의 증상(發熱, 汗出)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潮熱을 수반한다. 여기에 더하여 일종의 精神異常 증상까지 보인다	
◎盜汗(210)	
◎日晡潮熱 發作有時(210); 潮熱(217,218), 煩熱 汗出則解 又如瘧狀 日晡所 發熱 (249) 蒸蒸發熱(257) 翕翕有熱狀이다가 奄然發狂(201)	◎狂瘧溫淫汗出(陽明熱證이 심해지는 상태)
◎譫語(219,220,221,222,223,224,225,227, 228,229,230,231) 鄭聲(219) ¹⁾ 語言亂(227) 躁 心憤憤(231) 怵惕 煩躁不得眠(231) 獨語 如見鬼狀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222)	◎病至則 惡人如火 聞木聲則 惕然而驚 心欲動 欲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以上 胃經)

21) 『傷寒論』 陽明病 條文 중에서 『靈樞·經脈篇』 陽明實證과 관련된 條文은 201조-陽明病 熱盛으로 發狂/210조-陽明病의 發熱狀과 脈/216조-調胃承氣湯으로 陽明病의 熱을 해소/217, 218조-潮熱에 承氣湯사용법/219조-危篤하여 헛소리/220, 221, 222조-譫語症의 危篤한 상태/223, 224, 225, 227, 230조-承氣湯으로 譫語等 危篤證을 치료하는 방법/228조-譫語 발생과정/231조-陽明內熱譫語로 梔子豉湯證/249조-煩熱證 發汗後에도 潮熱하는 증세/257, 258조-太陽病 蒸蒸發熱 調胃承氣湯證/259조-小承氣湯主證/ 260조-小承氣湯證과 大承氣湯證의 轉變과정/261, 263, 264, 265조-大承氣湯證 등에 관하여 기술 등이다.

또한 『傷寒論』에서는 '陽明實證'의 치료처방으로 調胃承氣湯(제216,258조), 大承氣湯(제217,218,222,225,227,230,249,260,261,262,263,264,265조), 小承氣湯(제217,218,223,224,259조)을 병증에 따라 提示하여 놓았는데, '胃家實'의 大便秘結 증상에 대해 急下하거나 通便軟堅하여 陽明의 實熱을 풀고 除滿消痞하는 처방들이다. 이는 '陽明實證'의 精神病的 증상에는 通便으로 泄熱하는 것이 病因病機에 부합되는 처방을 보여주는 것이다.

(3) 陽明發黃證

陽明發黃證은 기본적으로 '陽明熱證'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陽明熱證의 증상(發熱, 微汗出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小便色黃, 黃疸의 증상까지 보인다. 『傷寒論』에는 黃疸의 다양한 증상과 함께 小便不利 등으로 陽明熱이 鬱蒸하면 濕熱로 化하여 黃疸가 생기는 病機를 설명하여 놓았고, 『靈樞·經脈篇』에도 胃陽明의 氣가 有餘하면 黃疸가 발생함을 記述하고 있다. 『傷寒論』陽明病 條文²²⁾과 『靈樞·經脈篇』의 '陽明發黃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陽明發黃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기본적으로 陽明熱證의 증상(發熱, 微汗出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黃疸의 증상까지 보인다.	
○發黃(245,270)發熱色黃(215)身黃發熱(269) 面目黃(241)身目爲黃(267) 身黃如橘子色(268)	○其有餘于胃則溺色黃(胃經) ○目黃口乾(大腸經)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憹者 身必發黃(208) 陽明病 被火 額上微汗出 小便不利者 必發黃(209)	

그리고 『傷寒論』에서는 '陽明發黃證'의 치료처방으로 茵陳蒿湯(제245,268조), 梔子蘗皮湯(제269조), 麻黃連翹赤小豆湯(제270조)을 病證에 따라 提示하여 놓았는데, 清熱利濕작용이 위주이며 경우에 따라 表證을 수반할 때는 解表작용을 가지는 처방들이어서 陽明의 鬱熱이 濕熱로 化하여 생기는 病因病機에 치료법이 부합된다.

(4) 陽明血證

陽明血證은 燥熱이 血分으로 들어가 血絡을 손상함으로써 出血이 생기거나 瘀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傷寒論』에서는 血熱로 인한 下血, 膿血便과 瘀血性的 黑便 등 大便血의 병증과 衄血병증을 記述하였고 『靈樞·經脈篇』에도 胃經과 大腸經의 病證에 각각 <衄血>을 記述하였다. 『傷寒論』陽明病 條文과 『靈樞·經脈篇』의 '陽明血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陽明血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기본적으로 陽明熱證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熱入血分의 증상이 나타난다.	
○衄(211,237)/下血證語(226)/大便色黑(246)便膿血(266)	○足陽明胃是主血(胃經) 衄衄(위경, 大腸經)

22) 『傷寒論』陽明病 條文中에서 『靈樞·經脈篇』의 陽明發黃證과 부합되는 條文은 208조-陽明病 心中懊憹으로 發黃/209조-陽明病에 火治로 發黃/241조中 面目悉黃 .. 云云/245조, 268조-陽明病發黃에 茵陳蒿湯主證/267조-寒濕으로 인한 發黃/269조-傷寒發黃 梔子蘗皮湯 主證/270조-瘀熱로 發黃에 麻黃連翹赤小豆湯 主證 等이다.

또한 『傷寒論』에서는 '陽明血證'의 치료처방 一例로 攻逐蓄血의 抵當湯 (제246조)을 提示하여 놓았는데, 이 처방은 오래된 瘀血로 인한 黑便을 攻逐蓄血작용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陽明血證'의 病因病機에 부합하는 치료법의 하나이다.

(5) 陽明中寒證

陽明中寒證은 陽明病임에도 기본적으로 熱證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傷寒論』에서는 食慾이 不振하여 잘먹지 못하며, 泄痢症을 보이고 때로는 딸꾹질이나 구역감을 느끼게 된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이는 胃陽의 不足으로 邪氣가 寒으로 轉化되어 裏虛寒證이 나타나고 胃寒氣逆으로 胃의 정상적인 消化機能이 失調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靈樞·經脈篇』에는 寒證으로 몸이 떨리거나 腹部脹滿이 나타난다고 記述하고 있다. 『傷寒論』陽明病 條文²³⁾과 『靈樞·經脈篇』의 '陽明中寒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陽明中寒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陽明病임에도 기본적으로 熱證의 증상이 없다.	
○不能食(199,200,203)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濇然汗出 大便初硬後溏(200) 下痢清穀(235)	○酒酒振寒/氣不足則身以前皆寒(胃經) 氣虛則寒栗不復(大腸經)
○噦(203) 胃中虛冷 不能食 飲水則噦(236)	○黃蠶腹脹/胃中寒則脹滿, 大腹水腫(胃經)
○無汗 小便利 嘔而咳 手足厥 頭痛(206) 食穀欲噦(252)	

그리고 『傷寒論』에서는 '陽明中寒證'의 치료처방으로 回陽救逆의 四逆湯(제235조), 溫肝暖胃·降逆止嘔의 吳茱萸湯(제252조)을 病證에 따라 제시하여 놓았는데, 이들은 回陽救逆하거나 溫肝暖胃·降逆止嘔하는 처방으로 陽明의 胃陽이 부족한 裏虛寒證에 寒證을 몰아내는 작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陽明中寒證'의 病因病機에 치료법이 부합된다.

결 론

『傷寒論』에서의 六經辨證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傷寒論』의 條文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陽明病'을 연구대상으로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병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知見을 얻었다.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六經辨證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靈樞·經脈篇』의 陽明經의 病候는 『傷寒論』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傷寒論』의 陽明病의 辨證論治 이론이 『靈樞·經脈篇』에 기초하여 발전, 체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靈樞·經脈篇』의 陽明經의 病候를 陽明熱證, 陽明實證, 陽明發黃證, 陽明血證, 陽明中寒證 등으로 분류하여 『傷寒論』의 陽明病의 病候와 비교·분석 결과 서로 밀접하게 부합되었고, 또한 衄血, 口喎, 脣脣 등 陽明經 經絡분포를 따라 나타나는 병증까지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傷寒論』六經辨證에서의 辨陽明

23) 『傷寒論』陽明病 條文中에서 『靈樞·經脈篇』의 陽明中寒證과 부합되는 條文은 제200조-陽明病 中寒의 증상과 痙痙/203조-陽明病 胃中虛冷과 딸꾹질/206조, 252조- 吳茱萸湯證으로 手足厥冷과 관련 비교/235조-表熱裏寒證 四逆湯 主證/236조-胃中虛冷으로 딸꾹질 等이다.

經脈證并治가 『靈樞·經脈篇』의 手足陽明經의 經脈病候에서 유래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한 것임을 시사한다. 『傷寒論』에서 陽明病은 外感熱病의 한 형태이면서 胃腸과 大腸의 병리반응의 증후를 내포하고, 辨證과 論治까지 개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金完熙 外,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2. 金賢濟·洪元植 編譯,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3. 孟雄在 譯編, 傷寒論概說, 韓國 益山市,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4. 朴憲在, 傷寒論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1995.
5.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素問,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6.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7. 裴秉哲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8. 裴秉哲, 傷寒論總綱,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6.
9. 申興默 金吉菴,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慶州, 東國大學校出版局, 2000.
10. 安圭錫·엄현섭·김성훈, 傷寒論病證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1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杏林書院 影印, 1976.
12. 朱肱, 活人書, 서울, 아리진, 1998.
1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4.
14. 崔達永, 傷寒論釋講, 서울, 大成文化社, 1995.
1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16.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7. 高德, 傷寒論,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 春秋出版社, 1988.
18. 高峰 編著, 鍼灸心傳,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19.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20. 竇材, 扁鵲心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21. 上海中醫學院 編, 新編中醫學教材 中醫學基礎, 中國 上海, 商務印書館, 1984.
22. 王輝武, 傷寒論手冊, 中國 重慶市,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4.
23. 劉建平 外 編著, 傷寒雜病論,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24. 劉孔藤 主編 岳汎·周然密·錢小燕 編著, 經絡辨證概論, 中國, 廈門大學出版社, 1988.
25.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3.
26. 任應秋 主編,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中國 上海, 1983.
27. 李吉祥 編著, 臟腑經絡遺方用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28. 張仲景 著·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29. 戴玉 等 編著, 仲景辨證治療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30. 錢超梢,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31. 陳國信 外 4人, 傷寒論症狀鑑別綱要, 中國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32. 陳鼎三 編著, 醫學探源, 中國 四川省,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6.
33. 崔月梨, 金匱要略,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 春秋出版社, 1988.
34. 韓祗和 撰, 中國醫學大系 第6卷 傷寒微旨論 傷寒源篇, 中國, 商務印書館,
35.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대한 연구, 慶州,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4.
36. 朴贊國,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의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 碩士學位論文, 1981.
37. 王琦, 陳庚, 近三十年來有關『傷寒論』三陰三陽問題研究概況, 中國, 山東中醫學院學報, 7(1), 1983.
38. 殷鐘元, 黃帝內經과 仲景傷寒論의 醫學思想的 連繫性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86.